

2014년 철강재 출하 7,926만톤 기록

국내 출하는 제조업의 부진에 따른 판재류 중심 출하 감소로 전년비 5.0% 감소한 5,103만 2천톤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해외법인向 소재공급 확대 및 미국 에너지산업 호조세로 인한 강관 수출 증가로 전년비 10.5% 증가한 2,823만 6천톤을 기록하였다.

2014년 철강재 출하 실적은 내수 침체 불구, 수출확대 노력으로 전년비 포함인 7,926만 8천톤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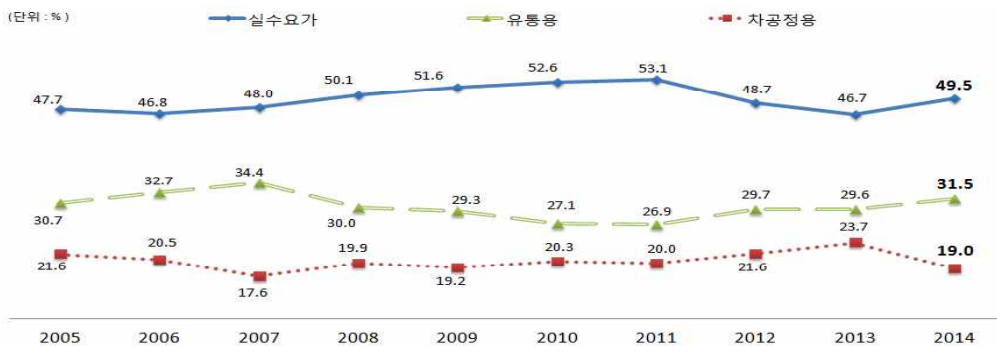
이 중 국내 출하는 제조업의 부진에 따른 판재류 중심 출하 감소로 전년비 5.0% 감소한

5,103만 2천톤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해외법인向 소재공급 확대 및 미국 에너지산업 호조세로 인한 강관 수출 증가로 전년비 10.5% 증가한 2,823만 6천톤을 기록하였다.

비중을 보면 2013년도 국내출하 대 수출은

〈표 1〉 출하 물량 추이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비
총 합	55,063	63,689	72,406	80,201	80,716	79,266	79,268	-
국내 출하 (비 중)	42,363 (76.9)	45,815 (71.9)	51,635 (71.3)	56,089 (69.9)	55,040 (68.2)	53,712 (67.8)	51,032 (64.4)	5.0% ↓
수출 (비 중)	12,700 (23.1)	17,874 (28.1)	20,770 (28.7)	24,112 (30.1)	25,676 (31.8)	25,554 (32.2)	28,236 (35.6)	10.5% ↑



〈그림 1〉 국내출하 비중 추이

〈표 2〉 국내출하 비중 추이

(단위: 천톤)

	2010	비중	2011	비중	2012	비중	2013	비중	2014	비중
실 수 요 가	27,151	100.0	29,769	100.0	26,802	100.0	25,087	100.0	25,245	100.0
계 조 업	19,726	72.7	21,980	73.8	19,277	71.9	17,997	71.7	18,210	72.1
조 선	6,756	24.9	7,124	23.9	5,569	20.8	4,666	18.6	5,349	21.2
자 동 차	6,107	22.5	7,071	23.8	6,725	25.1	6,730	26.8	6,943	27.5
전 기 전 자	2,282	8.4	2,094	7.0	1,875	7.0	1,489	5.9	1,272	5.0
조 립 금 속	1,153	4.2	1,106	3.7	1,124	4.2	1,185	4.7	1,272	5.0
일 반 기 계	934	3.4	1,183	4.0	1,142	4.3	1,065	4.2	1,515	6.0
건 설	7,425	27.3	7,789	26.2	7,525	28.1	7,090	28.3	7,035	27.9

〈표 3〉 봉형강류 출하 실적

(단위: 천톤)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비
출 하 계	18,922	20,004	20,099	20,671	20,516	0.8% ↓
국 내 출 하	15,892 (84.0)	17,012 (85.0)	17,376 (86.5)	17,820 (86.2)	17,502 (85.3)	1.8% ↓
실수요가	6,903 (36.5)	7,518 (37.6)	7,598 (37.8)	7,863 (38.0)	7,967 (38.8)	1.3% ↑
차공정용	1,947 (10.3)	2,072 (10.4)	1,933 (9.6)	2,222 (10.7)	2,209 (10.8)	0.6% ↓
유통용	7,042 (37.2)	7,422 (37.1)	7,845 (39.0)	7,736 (37.4)	7,326 (35.7)	5.3% ↓
수 출	3,030 (16.0)	2,992 (15.0)	2,723 (13.5)	2,851 (13.8)	3,015 (14.7)	5.7% ↑

〈표 4〉 판재류 출하 실적

(단위: 천톤)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비
출 하 계	47,262	53,483	53,386	51,324	50,705	1.2% ↓
국 내 출 하	31,385 (66.4)	34,515 (64.5)	33,136 (62.1)	31,458 (61.3)	29,040 (57.3)	7.7% ↓
실수요가	17,528 (37.1)	19,479 (36.4)	16,678 (31.2)	14,879 (29.0)	14,927 (29.4)	0.3% ↑
차공정용	8,522 (18.0)	9,101 (17.0)	9,902 (18.5)	10,453 (20.4)	7,356 (14.5)	29.6% ↓
유통용	5,335 (11.3)	5,936 (11.1)	6,557 (12.3)	6,126 (11.9)	6,757 (13.3)	10.3% ↑
수 출	15,877 (33.6)	18,967 (35.5)	20,250 (37.9)	19,866 (38.7)	21,666 (42.7)	9.1% ↑



〈표 5〉 강관 출하 실적

(단위 : 천톤)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비
출 하 계	4,809	5,069	5,565	5,671	6,385	12.6% ↑
국 내 출 하	3,289 (68.4)	3,322 (65.5)	3,304 (59.4)	3,244 (57.2)	3,246 (50.8)	0.1% ↑
실수요가	1,805 (37.5)	1,749 (34.5)	1,507 (27.1)	1,398 (24.7)	1,315 (20.6)	5.9% ↓
차공정용	- (0.0)	23 (0.5)	50 (0.9)	25 (0.4)	110 (1.7)	346.1% ↑
유통용	1,484 (30.9)	1,550 (30.6)	1,747 (31.4)	1,821 (32.1)	1,821 (28.5)	-
수 출	1,521 (31.6)	1,746 (34.5)	2,261 (40.6)	2,427 (42.8)	3,139 (49.2)	29.3% ↑

67.8 : 32.2 이었으나 2014년에는 64.4 : 35.6로 수출 비중이 확대되었다.

국내 수요부문별 출하실적을 보면, 실수요가向 출하는 2,524만 5천톤(전년비 0.6% ↑)으로 비중은 49.5%(전년비 2.8%p ↑), 유통용은 1,609만 9천톤(1.2% ↑)으로 31.5%(1.9%p ↑), 차공정용은 968만 8천톤(23.8% ↓)으로 19.0%(4.7%p ↓)의 비중을 기록하여 차공정용 비중은 축소된 가운데 유통, 실수요가 비중은 확대되었다.

실수요가용 출하를 수요산업별로 보면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순위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3위를 기록한 조선은 수주량 감소에도 건조량 증가에 힘입어 2.6%p 상승한 21.2%로 20%대에 재진입하였다.

철강재 품목별 출하물량을 보면, 봉형강류는 2,051만 6천톤(전년비 0.8% ↓)으로 국내출하 1,750만 2천톤(1.8% ↓), 수출 301만 5천톤(5.7% ↑)을 기록하였다.

선재의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向 선재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한 반면, 건설차공면적증가로 철근의 건설向 출하는 증가했으나,

봉강 유통물량 감소로 내수출하가 부진하였다.

실수요가용 출하 실적을 보면 건축向 출하가 4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동차는 15.2%, 토목 9.8%, 일반기계 8.7% 순으로 나타났다.

판재류는 5,070만 5천톤(전년비 1.2% ↓)이 출하되었다. 이 중 국내출하는 2,904만톤(7.7% ↓), 수출은 해외법인向 열연강판 등 소재공급 확대 노력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어 2,166만 6천톤(9.1% ↑)을 기록하였다.

국내출하에서 실수요가용 출하는 1,492만7천톤으로 0.3% 증가하였으며, 차공정용은 29.6% 감소, 유통용은 10.3% 증가하였다.

실수요가로는 대표적인 수요산업인 자동차, 조선向 물량 증가로 각각 1, 2위를 기록하였으며, 건설은 기타 제조업向 물량 감소로 4위에서 3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실수요가용 출하 비중은 자동차 36.7%, 조선 27.8%, 건설 10.6% 순이다.

강관은 638만 5천톤(전년비 12.6% ↓)이 출하되었다. 이 중 국내출하는 324만6천톤(0.1%

〈표 6〉 2014년 실수요가 출하비중

(단위 : %)

부	문								제조업	건설업	실수요가
		조립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기타				
	형강	0.4	2.1	0.0	44.0	4.0	1.4	51.9	48.1	100.0	
	봉강	16.3	27.1	0.3	4.3	43.2	8.5	99.6	0.4	100.0	
	철근	-	-	-	-	-	-	-	100.0	100.0	
	선재	3.2	3.5	0.6	0.6	37.8	48.9	94.7	5.3	100.0	
	봉형강류	5.2	8.7	0.1	6.2	15.2	5.4	40.7	59.3	100.0	
	중후판	1.0	6.6	0.0	77.2	0.3	5.9	91.0	9.0	100.0	
	열연강판	2.7	1.6	8.1	0.5	78.5	2.1	93.6	6.4	100.0	
	냉연강판	10.6	4.0	6.1	0.7	69.2	7.7	98.4	1.6	100.0	
	(STS냉연)	4.3	6.9	19.2	7.3	50.6	5.6	93.9	6.1	100.0	
	전기강판	-	-	100.0	-	-	-	100.0	-	100.0	
	석도강판	31.3	-	1.5	-	-	67.2	100.0	-	100.0	
	아연도강판	7.5	0.9	9.1	0.0	57.2	9.9	84.6	15.4	100.0	
	(용융아연)	8.0	1.0	4.1	0.0	61.0	9.7	83.8	16.2	100.0	
	(전기아연)	3.0	0.6	48.8	0.0	27.2	11.2	90.8	9.2	100.0	
	칼라강판	8.4	0.4	23.5	2.8	0.2	17.0	52.3	47.7	100.0	
	기타도금	27.2	-	13.4	-	28.8	1.4	70.8	29.2	100.0	
	판재류	5.4	3.5	8.3	27.8	36.7	7.7	89.4	10.6	100.0	
	강관	3.9	5.0	1.0	12.3	13.2	9.2	44.5	55.5	100.0	
	주강	2.4	2.4	3.8	35.7	19.5	36.2	100.0	-	100.0	
	단강	0.0	24.4	1.2	53.5	6.9	13.9	100.0	-	100.0	
	주단강	0.2	22.8	1.4	52.2	7.8	15.5	100.0	-	100.0	
	합계	5.0	6.0	5.0	21.2	27.5	7.4	72.1	27.9	100.0	

↑), 수출은 미국 에너지산업 호조세 및 ASEAN 向 수출에 힘입어 313만 9천톤(29.3%↑)을 기록하였다.

특히, 국내출하 대 수출비중이 2013년 57.2 : 42.8에서 2014년 50.8 : 49.2로 수출비중이 6.4%p 증가하며, 국내출하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국내출하에서 실수요가용 출하는 131만 5천톤으로 전년비 5.9% 감소하였으며, 유통용 출하는 182만 1천톤으로 전년비 보합이다.

실수요가 출하는 건설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토목, 건축 비중이 1, 2위 자동차가 3위를 차지하였다. 